

# 전주 대변혁 위한 정부 지원 요청

### 우범기 전주시장, 정부세종청사 찾아 문체부·기재부 상대로 국가예산 활동 펼쳐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대변혁 실행 1년인 올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 공략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상대로 시장 핵심과제 관련 국가 예산 건의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관련 문화콘텐츠 분야 추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 연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우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을 만나 전주시 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역점 사업의 추진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논의 사항은 △독립영화의 집 건립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상대로 시장 핵심과제 관련 국가 예산 건의와 문화콘텐츠 분야 추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등으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시장은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예산실장을 포함 주요 간부

들과 만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배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기재부에 대하여 △독립영화의 집 건립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한글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드론해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과 수시 배정 해제를 요청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젊고 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찬란한 대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전라도의 수도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 수 있도록 꾸준히 지역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30~31일 음식 재료를 다듬고 준비해 부침개, 떡국떡 등을 관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50세대에 전달했다.

## 설맞이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우리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하는 홀몸 어르신 등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행사를 펼쳤다.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음식 재료를 다듬고 준비해 부침개, 과일, 떡국떡 등 꾸러미를 관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장애 등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진행하였으며,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했다.

황의숙 회장은 “명절이 되면 소외된 이웃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는데 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을 드시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밀반찬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봉사현장을 찾아 봉사단을 격려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매우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쳐주셨다”며, “설 연휴기간 소외된 이웃들이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진행하였으며,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순항’

### 2월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3월 야간경관 조성 기본설계용역 추진

전주시가 1박 이상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중인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광 케이블카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월 1일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최적의 안을 도출한 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기로 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하늘에서 기린봉과 승암산, 아중호수 일대 등 전주의 주요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 외연을 전주지방정원과 아중호수 일대 등 전주 동부권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총 40억 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요 사업인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추

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경관심 검토용역에 착수해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중호수만의 디지털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 방안을 수립한 후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대표 관광지와의 전주 대표축제를 등과 연계 가능하고, 아중호수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기로 했다.

/김욱기 기자

이를 통해 시는 아중호수가 시민과 여행객이 전주의 문화와 역사, 예술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재창조되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1일 한농농어촌공사와 ‘아중호수(인교제) 등 농업용 저수지 관광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그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였던 아중호수에 대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당시 △아중호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시설(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은바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1등 공기업 도약 위한 사업계획 보고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1등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2024년 사업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역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ESSG 으속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 혁신 공기업’을 비전으로, ‘성장을 더하고, 안전을 곱하며, 소통을 나누는’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또 탄소 발생과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에서 100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2 Zero, Target 100’을 실현 과제로 선정했다.

공단은 올해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추진’, ‘공영주 차장 무정차 주차 요금 자동결제 및 정책감면 자동 인식 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최우선시설 인증 획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주시의 ‘일상이 행복한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구현’ 계획에 발맞춰 안전한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민간 협력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조직구조 고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공단은 내부 보고회를 거쳐 경영계획을 확정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공단을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시민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설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시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횡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



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

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의 경우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